

삼성, 지방대 채용 35%로 확대

5%는 저소득층 특채

삼성이 대졸 신입사원의 3분의 1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뽑기로 했다. 저소득층도 5% 특별 채용한다.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채용 방식을 바꾸고, 사회 불평등을 없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인재'를 강조해 온 이근희 삼성 회장이 제2 신경영의 첫 작품으로 채용 혁신을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A15면

삼성은 올 하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공채부터 지방대생 채용 비율을 35%까지 높이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 5년간

삼성의 지방대생 채용 비율은 25~27% 수준이었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 선발 인원 9000명을 감안하면 매년 3200명가량의 지방대생을 선발하겠다는 얘기다. 개인 능력보다 출신 대학 서열로 차별받는 관행을 없애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 출신 대학생도 연간 400~500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아 채용한다.

이인용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은 "1995년부터 학벌 등 관행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능력 중심의 '열린 채용'을 실시해

왔다"며 "양극화로 기회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함께 가는 열린채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올 들어 고졸 공채를 첫 실시하고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등 채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다. 삼성은 또 저소득층 교육과 채용을 연계한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시작한 교육 기부 프로젝트인 '드림클래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과후 학교 참가 중학생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고교 장학금과 일자리까지 주기로 했다.

김현석기자 realist@hankyung.com